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박덕영 주간교수 | 김두현 편집인 | 김혜미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103호

2면 대학
총학생회 '설화'가 펴낼 올해의 새로운 이야기
신입생을 위한 HIGH 시스템 바로 알기

3면 사회
천상의 하모니, 에브리싱 코러스를 아시나요?
쏟아져 나온 불만, 택지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대한민국 사실상 도시국가, "지방청년 이탈 가속화"

5면 보도
이변은 없었다. 강릉, 권성동 5선
학생생활관 통금시간, 이대로 괜찮을까?

6면 특집기사
학생 발길 끊긴 "노천극장"
폐허 전락…
'활성화 과제' 책임 어디로

7면 인터뷰
연대의 신영극장,
그 이야기를 묻다

박덕영 총장에게 듣는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



우리 대학 제5대 박덕영 총장 취임식이 지난 5월 9일 해람문화관에서 개최되며 본격적으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이 취임한 박덕영 총장이 향후 그려나갈 우리 대학의 비전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총장실 한편에는 치아 모양과 기타 악기가 그려진 학생들의 롤링페이퍼가 자리하고 있어, 평소 학생들과 격의 없이 지내오던 총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치과대학 평교수와 치과대학장, 기획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 직무대리를 거쳐 총장까지 이어져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우리 대학에 펼쳐질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Q. 올해 취임식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선 이전의 계획과 다짐은 어떠셨는지, 현재 총장으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A.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자 우려하는 부분은 2030년 2월 말 정년퇴직 전까지 학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2040년의 학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2040년에는 올해에 대비해서 대학 입학 정원이 4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수도권 선호 현상을 보면 지방대학은 40% 이상인 50~60%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 생존 자체가 무리인데, 그때도 살아남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통합된다고 2040년의 생존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생존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을 성사시켜서 캠퍼스 저력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당선 이전이나 지금이나 통합과 관련된 여건 및 상황이 달라진 건 없지만, 통합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하루빨리 안정 궤도에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학생 대표단 설문과 학내 구성원 설문이 이루어진 것도 추진 과정에서 빠져 있었던 절차를 채워 넣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통합을 어떻게 성사시킬지"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당면한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에 학생들이 얼마나 입학할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현재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취임사에서 "학생의 꿈을 끌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먼저 찾는 대학'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구상 중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이 학교에 입학하면 이런 면에서 좋겠다."라는 부분,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학문적인 부분도 필수적이겠지만, 학생들이 재학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해야 할 역할을 얼마나 잘 추동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역 기관과 만남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설득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친숙한 지역인가, 대학생들을 우대하는 문화가 형성된 지역인가 하는 부분과 더불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지역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결합해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학생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이외에도 더 많은 국가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A. 우선 국제 교류 형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해외 유학생을 우리 대학으로 유치하는 것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도 생존적인 측면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 그대로 '교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현재 교환 학생 프로그램 활성화에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 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동구권, 동남아시아 학생들은 많지만,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국이나 유럽권의 교류 학생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상입니다. 학교 차원의 복지 제공 등 지출이 이루어지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특성상, 상호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입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균형이 갖추어지지 않으며 성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며 일본 대학과의 교류 시도 등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유학생을 유치해서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게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Q. 교수 밴드 이스트 사운드(East Sound)로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이외에도, 총장님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A. 교수 밴드 공연을 학생들이 얼마나 소통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소통을 자주 하고 싶고, 수천 명의 학생을 일일이 다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으니 학생회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내부에서 들리는 요청사항이 학생회에 잘 전달되고, 학생회가 의견 수렴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임 총장님 때도 소통의 장이 열리곤 했는데, 더 못함은 없이 더 자주나 더 깊숙하게 얘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 밴드 멤버 박덕영 총장이 '한마당 대잔치 연합 축제'에서 기타 연주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 제공=지역협력과

Q.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가장 우선적인 것은 "책임감"입니다. 좌우명으로는 "어느 자리에 있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삼으며, 우리 학생들도 본인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평교수로 재직할 때도 내가 소속된 단과대학에 대한 애정과 의무감은 있었고, 더군다나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당연히 견지해야 하며, 나아가 "주인의식을 가진 입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한 교수님께서 학교의 주인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큰 울림이 있는 얘기였고,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며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진 총장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주인이라서 무언가를 향유하고 권위나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라며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97년도부터 교수로 재직하고 이후로 여러 주요 보직에 계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이라고 한다면 2년간 기획협력처장을 맡던 때를 꼽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등으로 명칭은 바뀌어 왔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교육부의 평가로 국내 대학교가 등급을 부여받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협력처장을 맡기 전 최초로 시행한 1주기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C등급을 받으면서 교육부에서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낮은 수준의 대학이라는 잣대를 부여받게 되는 상황이 되자 무척 속상했습니다. 기획협력처장을 맡은 2년 동안 대학이 운영하던 시스템의 많은 것을 바꿔야만 했고, 그 과정 중에 충돌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자율개선대학을 이루는 데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그리고 혼자 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대학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가장 보람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맞는 일을 하려고 해도 비판과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총장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꿈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의 슬로건이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일단 꿈이 있어야 꿈을 향한 무언가를 동행할 수 있을 텐데 그 맥락을 잡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꿈을 어떻게 갖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관문이라고 본다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꿈일 텐데 그 꿈을 명확히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더 노력해 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계기가 된다는 자체로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해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바꾸더라도, 남아 있는 열정의 에너지로 다른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 외에 다른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몰입하는 무언가가 모든 학생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어서 첫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에도 인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거나 헛바퀴가 돌 수 있으니까요. 학생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뭘 좋아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미처 접해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접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자유전공학부가 개설되고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정 학과 소속 없이 입학해서 1년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학과가 내 적성에 맞을지 탐색한 후에 2학년부터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하는 제도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찾도록 대학 차원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꿈을 가지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주인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혜미 기자

총학생회 ‘설화’가 펴낼 올해의 새로운 이야기



총학생회 단일후보 ‘설화’가 52.24%의 투표율(찬성 74.43%, 반대 10.32%, 기권 15.25%)로 지난 3월 27일 당선되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이제현(도시계획부동산학과 19학번), 강릉부총학생회장 임태희(데이터사이언스학과 21학번), 원주 부총학생회장 조성욱(컴퓨터공학과 19학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설화’라는 이름처럼 눈꽃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총학생회가 되어 1년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 구성으로 올해 기대되는 변화 중 하나는 ‘해람 Develop 공모전’이 개최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 마스코트, 굿즈 등을 선정하고, 학교 대표 색상을 홍보하여 ‘해람인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마스코트 공모전은 5월 27일에 개최되어 6월 14일까지 진행 중이다. 6월 17일부터 3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6월 21일에 결과가 공지되며, 대상 1명과 인기상 3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마스코트 당선작은 향후 다양한 공모전과 대동제 등 학내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릉원주대학교를 떠올렸을 때 하나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공약을 이행한 결과, 현재 재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다실9가(자궁경부암 백신) 비용 지원, 안과를 비롯한 메디컬 제휴, 학교 주변 음식점과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 제휴업체들을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설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주 캠퍼스의 낙후 시설 리모델링 등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생 복지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선거인 만큼 총학생회 출범이 다소 늦어지며 그동안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2023년 11월 치른 총학생회 투표에서 ‘백야’는 징계 누적으로 인해 입후보 등록 취소되었고, 단일후보가 된 ‘고백’은 우리 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제69조) 중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50%가 넘어야 투표가 성립된다’는 규정에 따라 득표율 미달로 당선되지 못한 바 있다.

‘설화’ 총학생회장이자, 당시 ‘백야’ 정후보였던 이제현 학우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 상황과 심정에 대해 “선거 과정 자체가 학우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다. 공청회와 공약으로만 승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와 낙선, 득표율 미달 등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작년의 실책으로 인해 그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정직하게 이뤄온 것까지 무너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다시 한번 ‘설화’로 나오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선거 과정 중,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발생한 선동 행위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장은 “근거 없는 선동이 유권자의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선거에 관한 학우들의 관심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체감했다.”라고 전했다. “학회장, 단과대 회장, 총학생회장을 경험하며 학생들의 참여율과 관심 저조가 갈수록 체감된다. 기권표는 ‘나는 이 선거의 찬반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미이고, 투표 미참여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선동으로 투표하지 않는 행위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복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짊어질 학생회는 존재해야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많아지는 건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견을 내야 한다.”라며 학생들의 선거·투표 의식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설화’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으로는 “학우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1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설화, 그리고 총학생회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출범이 늦어졌다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질 낮은 수행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조금 더 나은 대학 생활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김혜미 기자

신입생을 위한 HIGH 시스템 바로 알기

HIGH 시스템(이하 하이시스템)은 “Haeram In Growth Hub”의 약자로, 우리 학교의 통합 인재 양성 시스템이다. 하이시스템을 운용하는 목적은 학생들을 우리 학교의 6대 핵심 역량인 ‘창의융합, 도전정신, 의사소통, 배려협력, 전문역량, 자기관리’를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하이시스템을 이용하면 체인지 시간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비교과 활동 졸업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졸업 요건으로 체인지 시간이 요구된다. 하이시스템을 통해 체인지 시간을 20시간 이상 채우면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하이시스템에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이수하기 쉽거나 다양한 학외 활동이다. 지금까지 학생들 사이에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에는 템플스테이, 숲길 걷기, 서핑 프로그램 등이 있다. 5월에 진행한 취업캠프와 진로 캠프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하이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 담당자인 안영지 주무관은 “실제 취업 캠프나 진로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에게서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고, 원하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HIGH 시스템, 이용 방법은?

하이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시스템을 알리는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잡카페 인스타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하이시스템을 홍보에도 불구하고 하이시스템 운영 자체를 모르거나, 하이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하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과 하이시스템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먼저, 하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별 서비스 〉 해람인 〉 ‘HIGH’ 클릭하면 된다.

다음으로, 하이시스템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간혹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와 사후 역량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프로그램 이수를 인정하지 않아 체인지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HIGH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하이시스템에서는 학생 개인의 핵심역량·학습역량·취업준비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센터, 비교과 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역량개발, 글쓰기나 학업과 관련하여 전문 튜터에게 1:1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습클리닉,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미래 진로 상담과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하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①학습 관련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기 위한 ②대외활동 관련 프로그램,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정한 진로를 바탕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③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종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이나 외부 초청 강연 등 학생들을 위한 ④기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안영지 주무관에 따르면 학생성공지원과에서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커피 그것이 알고 싶다 (커피로 만나는 인문학 특강) ▲면접 이미지 프로그램 ▲진로캠프 및 취업캠프 ▲면접 준비와 관련한 프로그램 ▲취업 및 진로 관련 프로그램 ▲광고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단과대별 학과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있다.

HIGH 시스템의 이점은?

그렇다면 하이시스템을 이용하였을 때 학생들은 어떤 혜택과 이점이 있을까? 하이시스템을 성실히 이용할 시 ‘체인지 우수활동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에는 6월 30일까지 누적 체인지 20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40만원(학생역량인재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인지 20시간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 중 단과대학별 상위인증 학생 1명에게는 장학금 20만원(단과대학별 우수활동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며, 선발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중 상위인증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 10만원(우수활동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체인지 이수 시간이 많을 경우, 가산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적 우수 장학금 대상자라면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아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숙사생이라면 연말에 체인지 30시간 이상 이수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추후 생활관 입사에 유리하다.

하이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학업, 취미, 진로, 취업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체험할 기회를 준다. 학생들은 하이시스템을 통해 학교생활 중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과 스펙을 쌓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졸업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장학금과 가산점이라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이시스템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를 기대한다.

박지영 수습기자

문학 한 장



▲사진 제공=교보문고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싸여 청소차에 실려 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소년이 온다』 102쪽.

한강의 『소년이 온다』(2014)는 한국 현대사의 트라우마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장편소설로, 여러 인물에 초점을 맞추며 1980년 5월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게 된 중학생 동호와 주변 인물들의 고통 받는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어둠과 폭력의 시대 속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도시의 열흘’ 속 고통으로 파괴된 영혼들을 가감 없이 되살린다.

4·3항쟁의 작가 현기영은 『소년이 온다』를 두고 ‘망각에 저항하는 문학’이라고 했다. 5월의 그 날을, 진부한 죽은 이야기로 건조하게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울리는 경종이라는 의미다. 작가 한강은 1980년 광주의 열흘을 살아낸 인물들 6인의 목소리로 작품을 이끌어간다. 일찍이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소년이 온다』는 제 소설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소년, 그러니까 그분들이 써주고 전 제시간과 감각을 빌려준 것이 아닐까 해요.”

작가는 ‘에필로그, 눈덮인 램프’에서 소설을 쓴 개인적 동기를 밝히고 있다. “내가 건너온 무더운 여름을 정말 그는 건너오지 못했다”(208쪽). 작가가 떠나온 광주 중흥동 집에서 작가를 뒤이어 살았던 소년과 작가는 집과 집에 대한 구체적 기억을 매개로 연결된다. 열 살, 어린 나이에 소년이 겪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를 덮어둔 채 말을 이어가는 일의 어려움, 어색하게 이어지던 침묵”의 형태로 처음 전해듣게 된 후 소설을 쓰게 됐다. 광주의 끔찍한 고통이 다른 형태로 여전히 이 땅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진다.

김혜미 기자

천상의 하모니, 에브리싱 코러스를 아시나요?



▲에브리싱 코러스의 단원들이 10주년 행사에서 선보일 곡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김도현



▲강릉시민 합창단인 에브리싱 코러스 단장과 단원들의 모습이다. 사진=김도현

강릉시에는 특별한 합창단이 하나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학생과 직장인, 사업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강릉시민들로 구성된 비전문적 혼성 합창단 '에브리싱 코러스'이다. 강릉시민 합창단인 에브리싱 코러스는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한다.

2014년 창단 당시 6명으로 시작했던 에브리싱 코러스는 현재 60명의 단원이 참여하고 있다. 10년 동안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집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포스터 홍보물과 지인들을 통해 단원 모집을 한 합창단원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브리싱 코러스를 창단한 박대선 지휘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합창을 지휘했다. 음악 전공자로서 강릉시민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창단 이유를 밝혔다.

에브리싱 코러스의 가입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본인의 인적 사항과 지원 동기 및 희망 파트를 포스터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접수하면 된다. 오디션에 합격한 이후 수습 기간을 거쳐 임원진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식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는 여성 단원(소프라노, 알토)과 남성 단원(테너, 베이스)을 모집하고 있다. 에브리싱 코러스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여 9시까지 연습한다. 연습 장소는 복합문화공간인 '강릉 미술관 가는 길' 4층 하슬라 코러스센터이다.

에브리싱 코러스가 걸어온 길

에브리싱 코러스는 작년 10월에 전문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가곡 축제'에 참여했다. 특히 강릉시에서 주최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참여해 은메달을 수상하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 합창 단원 대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으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를 뽑은 만큼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남은 것 같다. 실제 대회에 참가한 이현석(베이스) 단원은 "처음 아마추어부터 시작했는데, 국제 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고, 연습 과정도 뜻깊었다."라고 말했다. 2년 차인 최우선(테너) 단원도 "살면서 언제 이러한 큰 무대에 서게 되겠냐."라며 대회에 참가한 소회를 밝혔다.

에브리싱 코러스는 곧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초등학교 기념행사와 12월 강릉오성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공연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외에도 매년 개최하는 정기 연주회가 있으니, 성악이나 합창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참석해 보길 바란다.

10주년을 맞이한 에브리싱 코러스

현재 에브리싱 코러스는 10주년 기념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공연의 컨셉은 '아트 팝'으로 아트 팝의 거장인 윤학준 작곡가의 노래들을 선정해 연습하고 있다. 박대선 지휘자는 "처음 창단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6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60명에 가까운 규모가 되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전문 예술 단체로 선정이 됐다.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생활 예술 단체가 있고 전문 예술 단체가 있는데, 강릉에서 유일한 전문 예술 단체로 선정되어서 10년 동안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다."라고 처음 창단했던 때를 떠올리며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밝혔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종일 단장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노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다. 노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생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간에 느끼고 받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다. 게다가 단원들 하나하나의 노력 덕분에 전문 예술 단체에 선정되고 세계 합창 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며 단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단원들 모두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단체생활을 즐길 열정만 있으면 에브리싱 코러스의 새로운 단원으로 언제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쏟아져 나온 불만, 택지 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



▲철거 기간이 명시된 현수막만이 붙은 채 택지 풋살장의 인조 잔디가 벗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사진=송성운

우리 대학 인근 서부 경찰서 앞 택지에 조성된 풋살 공원은 강릉시에서 인기가 많은 구장 중 하나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기 축구 동호회, 인근 초중고 학생들까지 애용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약 5년 전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조 잔디가 마모되고 노후화 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이 축구 경기 중 부상을 당하거나, 노후화된 잔디로 인해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등 경기 결과가 바뀌는 일이 생겼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강릉시청 체육과에서는 교1동 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를 실행했다. 공사 기간 택지 풋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용자들은 다른 풋살장으로 발길음을 옮겼다.

본래 철거 공사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정 기간이 지나도 택지 풋살장은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은 채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결국, 풋살장은 잔디가 벗겨진 상태로 한 달 동안 방치되었다. 고지된 완공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택지 풋살장에 대해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풋살 동아리를 운영하는 함석원 학우(일본학과 18학번)는 "매주 이 경기장에서 풋살 모임을 했는데, 공사 기간과 공사 목적에 대한 명시가 없이 갑자기 구장을 쓸 수 없게 돼서 많이 당황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풋살장이 공사하고 있어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언제쯤 다시 풋살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불편함을 토로했다.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강릉시청 체육과에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는 이번 사태의 이유로 "철거 공사 담당팀이 따로 있고, 인조 잔디 교체 담당팀이 따로 있다. 두 팀은 서로 다른 시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가 없다."라면서 "철거 팀에서 공사 일시는 명시했지만, 교체 팀에서 일정을 명시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결국 5월 22일 인조 잔디 교체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한편, 우리 대학 대운동장도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동장 인조 잔디 정비 및 담장 설치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조 잔디가 처음 설치된 2018년 이후 6년이 지나간 시점에 노후화된 잔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당시 학교 측에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동장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했다. 인조 잔디 철거에서 교체까지 걸린 공사 기간은 단 3일에 불과했다. 또한, 우리 학교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사 기간과 내용을 명시해 놓고, 정확한 기간을 지킴으로써 택지 풋살장과 달리 이용자들이 계속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방지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배려로 빠른 시일 내에 대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 대학과 택지의 풋살장 '철거-교체 공사'를 비교하던 학우들은 택지 풋살장이 초래한 불편이 더 크게 와 닿는다고 지적한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빠르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릉시청에서도 이런 상황을 미리 공사업체를 통해 확인한 후 풋살장 인근에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다시 공지했다면 이용자들은 마냥 기다리는 불편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택지 풋살장 인조 잔디 교체에 대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송성운 수습기자
김도현 기자

대한민국 사실상 도시국가, 지방 청년 이탈 가속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청년 인구는 2024년 현재, 1990년 1,385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 1,02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청년 감소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표 이후에도 전체 수도권 인구 중 청년 인구는 매해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는 2022년 기준 37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13,685명이 감소했다. 이들의 순이동 인구는 1,574명 감소했다. 특히 강원권 일반대학 졸업자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청년 88% 수도권 취업 희망: 양질의 일자리, 취업 정보량 차이가 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따르면, 지방 청년들 88%가 수도권에서 취업을 희망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관하여 우리 대학 졸업생 김건은 "서울이 지방보다 넓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취업 준비에 있어서 인적 교류가 지방보다 수도권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졸업생 임준혁도 "지방과 수도권 간 취업 관련 정보량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현실적이고 주된 이유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고임금 프리미엄, 주거 정책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쿠팡이나 컬리 등 이커머스의 물류센터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등 생활의 편리성도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권 소재 대학 선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연구원은 2022년에 열린 '제79차 인재개발 정책포럼'에서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이동에 관련해서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라 할지라도 '기대 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지역에서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급인력의 지역 이주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권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을 위해서 수도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인서울'이라는 타이틀은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만큼,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주 기자

레트로 느낌 물씬! 지지GO 복GO 렛츠GO!

학생자치기구의 발대식과 한마당 대잔치가 지난 5월 16일 강릉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기존에 열렸어야 했던 대동제의 부재를 채우는 축제였기에 운영진들의 부담도 느낄 수 있었다. 축제의 슬로건은 〈지지GO 복GO 렛츠GO〉로, '복고풍' 콘셉트에 맞게 축제 위원진들도 90년대에 유행했던 청청패션, 스카프, 옛날 교복 등으로 차려입어 눈길을 끌었다.

복고풍 콘셉트를 살린 체험 부스 운영

예정대로라면 해람문화관 앞 야외 광장에서 진행됐을 부스는, 강풍으로 인해 문화관 내부로 옮겨 진행되었다. 체험 부스는 강릉 캠퍼스 7개 단과대학과 총동아리연합회 '이음'이 운영하였다. 타짱, 뽑기, 사격, 비석치기, 풍선 다트, 이음 다방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가 8개 준비되어 있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찾아주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구혜림 학우(국어국문학과 24학번)는 "체험할 부스가 많아서 재미있었지만, 아무래도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진행되다 보니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아 어수선한 점이 아쉬웠다."라고 말했다.

단과대 부스와 총발대식에 참여하면 푸드트럭 야시장 선입장권을 뽑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단과대 부스에 참여했을 때는 스티커를, 총발대식에 참여했을 때는 손수건을 지급하였다. 단과대 부스 스티커와 총발대식 손수건을 획득한 후, 본부 부스로 들고 가면 푸드트럭 야시장 선입장권 뽑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학우들의 부스 체험 독려에 도움이 되었다. 황현우 사회과학대학 '사랑' 기획부장(경영학과 19학번)은 "복고풍 콘셉트에 맞는 부스를 생각해 내는 것이 어려웠는데, 비석치기를 체험한 학우들이 비석을 쓰러뜨리지 못해도 부스 운영진들이 열심히 환호해 주는 모습이 재미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한동균 학우(무역학과 23학번)가 종합 가요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사진=반소정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1부 발대식, 2부 공연

오후 5시부터 1부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설화'의 포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이후 총대의원회 '은솔', 총동아리연합회 '이음', 그리고 강릉 캠퍼스 7개 단과대학 학생회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후, 오후 6시 15분부터 2부 한마당 대잔치가 진행되었다. 총학생회 '설화', 총동아리연합회 '이음', 단과대학 학생회들의 공연은 축제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복고풍' 콘셉트에 맞게 공연 노래도 붉은 노을, 써니(Sunny), 하트비트(Heartbeat) 등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 가요로 구성하여 많은 학우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직원 밴드 '고온(Go On)'과 교수 밴드 '이스트사운드(East Sound)'의 공연까지 이어졌다.

축제의 마지막에는 총 7팀이 참여한 종합 가요제가 진행되었으며, 현장 투표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었다. 가요제의 1등은 한동균 학우(무역학과 23학번)가 '해줄 수 없는 일(박효신)'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동균 학우는 "가사도 안 볼 정도로 1년 동안 수도 없이 연습했었다. 이번에 1등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졸업한 선배들에게 우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 선배들에게 1등 했다고 연락드릴 생각이다."라고 우승의 소회를 밝혔다.

구주희 총동아리연합회 '이음' 회장(조형예술디자인학과 21학번)은 "처음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 초기 구상이나 기획 등 정말 많은 것들이 어려웠다. 그래도 경험이 있는 단과대 회장들과 임원진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준 덕분에 협업이 잘 되어 축제가 잘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대동제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던 부담감, 좋지 않던 기상 상황으로 인한 부스 운영의 차질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던 축제였지만,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다.

반소정 수습기자

AI 시대의 대학과 인문학의 미래

김윤정(국어국문학과 교수)

근래 부쩍 AI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국을 치를 때만 해도 AI의 개발 속도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자한 OpenAI사에 의해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가 개발되자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등 미국의 빅 태그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의 관심과 투자를 집중시키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유수의 대학들, 특히 실리콘 밸리 주변의 버클리나 스탠퍼드의 경우 학생들의 전공 선택 비중은 IT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IT는 미국 학생들의 최고 인기 전공으로 이는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선호하는 것에 견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버클리와 같은 명문대에서 학생들의 수강 신청 현황을 보면 불과 몇 년 전에 대형 강의실을 차지하던 인문학의 인기 강좌가 지금은 30명 내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또한 수강 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학생들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처지라는 점이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학생들이 일자리에 급급해하고 있어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미국 경기의 흐름으로는 IT와 로봇만큼 주도성이 큰 산업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IT 분야에 취직하는 일은 미국 내 부의 흐름에서 가까스로 소외를 면할 수 있는 방편에 해당한다. 그만큼 오늘날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재구조화 사이에서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오늘날 IT에 매달리는 현상을 가리키며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호모 데우스로 형질이 바뀌는 과정이라 보고 있다. 호모 데우스(Homo Deus)는 '신이 된 인간', 즉 신(神)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인류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진화 과정을 밟아왔다면 앞으로의 인류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에 힘입어 호모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종의 탄생을 예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본주의 시대에 인간이 신에 대해 지녔던 초월적인 관념을 내포하는, 지적으로 완전한 생명을 가짐으로써 영원하게 된, 그야말로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인류를 가리킨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발달한 유전학이 적용될 때 인간은 스스로 신과 같은 초인류로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미래 예견은 여전히 우리에겐 SF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IT와 로봇,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를 볼 때 곧 닥칠 일이기도 하다. AI를 통한 데이터의 증폭은 인류가 스스로를 기계화하지 않을 때 기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AI의 등장은 인류를 자극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적으로 초월하도록 강제하는 요소다. 따라서 미래의 인류는 하라리가 말한바 '데이터 교(敎)'에 편승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지배와 종속이라는 새로운 계급 관계를 형성하게 될 법도 하다.

생성 AI가 등장하기 이전인 2, 3년 전만 해도 대학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화두였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코딩을 가르치는 만큼 대학생들이 코딩할 줄 아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능력으로 간주했다. 인문학계에서도 디지털 인문학이라 하여 인문학적 자료를 가공하여 교육과 학문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곤 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흐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컴퓨터 언어를 익혀야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정보 검색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AI는 코딩은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웬만한 정보 가공 작업도 모두 대신해 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니라 AI 리터러시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디지털이 되었건 AI가 되었건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리터러시(Literacy)이다. 지금까지 인류의 진보는 '쓸 줄 아는 능력'인 'Literacy'에 의해 가능했다기보다 꿈꾸는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리터러시가 시대에 적응하는 기술적인 능력에 해당한다면 꿈꾸는 일은 주어진 시대를 뛰어넘게 한다. 리터러시는 필수적인 것이되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어진 국면을 넘어서 도약하게 하는 그 꿈꾸기의 능력은 바로 인문학으로부터 습득할 수 있다. 인문학은 기계가 지니지 못한 욕망과 이상을 담고 있는 보고(寶庫)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문학이야말로 기계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하게 해준다.

이는 사이보그의 시대가 도래할수록 우리 스스로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인문학이 소멸하고 있는 현상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가도 말해준다. 인문학을 강조하는 일은 언제나 습관처럼 식상한 것으로 다가오는 감이 있지만,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염려해야 하는 신(神) 인류의 시대에 더욱 새삼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음이 힘들다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청년이 심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에 따른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정신건강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청년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학업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우선지원 대상 1순위는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이며,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 이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선발 과정에서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한다.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책정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심리 상담 서비스 유형을 고를 수 있다. 유형은 A형, B형 두 가지이다. A형은 일반적 심리 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세부사항을 보면 A형은 정부지원금 54,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있고, 시간은 50분이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제공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2급,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사람으로 이뤄진다.

B형은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다. B형은 정부지원금 63,000원 본인부담금 7,000원으로, 시간과 횟수는 A형과 동일하다. 다만 제공인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과 임상심리사1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뤄진다.

이용자는 사전에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이, 유형별 제공기관 상담을 통해 어떤 유형의 기관을 이용할 것인지 확인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며 서비스 제공 원칙은 3개월간 총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을 제공하며 본 심리상담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회당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서비스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는 사전검사, 상담, 사후검사, 종결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사후검사는 내담자의 심리상태나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상담은 대상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우울, 불안, 강박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에 개입하거나 문제의 예방을 돕는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와 상황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종결상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단 내담자의 심리상태가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신건강지원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다. 종결 상담은 1회로 마무리된다. 사후검사 시 상담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연장 의사와 추가 서비스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정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용자는 시·군·구에 변경 신청 시 신청서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며, 최대 12개월 추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신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청년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힘들면 심리상담사 등 전문요원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재강 기자

이변은 없었다. 강릉, 권성동 5선

난전의 4월 10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의 4년 임기가 끝나가며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실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국민의 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립각은 사실상 2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또 과거 여당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과 당내 노선 투쟁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의원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운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까지 참전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난전 속에서 우리 대학이 위치한 강릉 지역구는 누가 당선되었을까?

보수 연전연승, 강릉

과거부터 강원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군사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강릉의 경우,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 성향은 당선 결과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민주당 최욱철 전 의원의 2회 당선(이마저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두 의원직을 상실함)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계열 인사가 당선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2009년 재·보궐 선거 때부터 4선을 연임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새로운 인물이 진입장벽을 뚫고 강릉 지역구에 입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기호 1번/ 선수교체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22대 총선의 강릉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총 3명의 지역구 후보가 맞붙었다. 김중남 후보는 강릉고등학교를 나와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강릉원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거쳐 공무원 생활을 지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득표율 10%의 저력을 보여주며 정계 입문의 신호탄을 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 강릉시 지역위원장 배선식 후보를 경선에서 꺾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가 되었다. 주요 공약은 '동계올림픽 시설물 지원 법안'. 'RE100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도시 조성'으로 강릉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다.

기호 2번/ 강릉 4선 국민의힘 권성동

권성동 의원은 강릉명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대를 거쳐 검사 생활을 지냈다. 추후 이명박 정부의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최욱철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강릉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원내에 입성했다.

강릉에서 4선까지 완주하는데, 이중 눈여겨 볼 선거는 21대 총선이다. 당시 권성동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 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의 마찰로 강릉에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와 이에 반발하는 두 무소속 후보인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후보(전 3선 강릉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까지 총 4파전으로 치러진 이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은 40.84%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양당 체제가 굳혀진 한국 정치에서 당의 간판 없이, 4파전에서 당선되었다는 것은 후보의 높은 개인 기량과 강력한 지역 지지기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2대 총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김중남 후보를 짓누르는 모양새가 지속됐었다. 주요 공약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최종 확정', '제 2혁신도시 유치'이며 김중남 후보와 마찬가지로 강릉의 산업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다.

기호 7번/ 이준석 돌풍, 강릉까지 불까? 개혁신당 이영랑

이영랑 후보는 풍산고등학교(경상북도 소재)를 나와 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을 거쳐, 현재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 7회 지방선거 당시, 개혁보수 계열인 바른미래당(추후 미래통합당과 합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소속으로 강릉 지역구에 출마하여 삼파전 양상을 만들었다. 주요 공약은 '법조인 정계 진출 유예', '지방선거 시스템 공천 도입'으로 소속 정당의 비전에 부합하는 기성정치 개혁을 내세웠다.

이변은 없었던 강릉. 권성동 당선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진행되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졌다. 협치 없는 정치적 상황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엎친 데 덮친 격 의사 파업 장기화까지 악재들이 섞여 있는 상황 속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박스권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여당은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야권이 힘을 합쳤을 때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내주고 말았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지만, 강릉은 달랐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유명한 권성동 의원.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의 패널티를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여당의 개헌저지선(100석)이 뚫릴 것으로도 예측되었던 방송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출구 조사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김중남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이 유력해 보였다. 결과적으로 득표율 54.24%로 김중남 후보와 10% 이상 차이를 냄으로써 지역 지지기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당선됐다.

강릉에선 이겨도 전국에선 졌다. 권성동의 행보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결과는 21대 국회 때보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준석 의원과 조국 대표가 당선되었다는 점을 보면 21대 국회보다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참패에 이어서 여당 낙선자와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해 벌써 레임덕(절름발이 오리, '힘이 빠진 정권')에 이어 데드덕(죽은 오리, 국정 수행 능력이 '죽은 정권')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한 '윤핵관', '강릉 5선' 권성동 의원의 추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정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대 총선 결과

정당	의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이준기 수습기자

학생생활관 통금시간, 이대로 괜찮을까?

학생생활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학생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 중 일부는 학교 주변 원룸의 월세가 높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여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안전과 통제 등을 이유로 입실과 퇴실 시간을 제한하는 통금이 존재한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 역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통금을 실시하고 있다. 시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통금시간이 오전 1~5시로 변경되지만, 기존의 통금시간이 짧아 학생들의 불만은 매년 누적되어 왔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통금시간은?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생활관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식당 이용과 통금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1차)'가 이뤄졌다. 참여율은 52.8%로 절반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4시간 개방이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중 일부는 수면권 보장 등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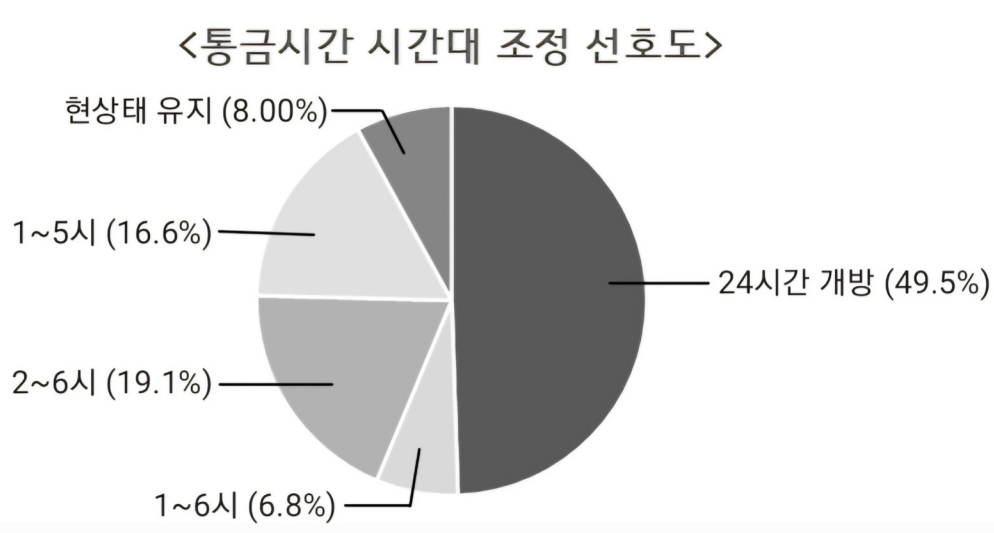
통금시간 조정 가능성은?

학생생활관 행정실 박정희 팀장은 "통금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는 처음 실행하였다."라며, 통금시간 조정에 대해 "6월 초에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24시간 개방의 수요 비율이 가장 높더라도 현재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통금시간을 완화할 시 발생할 우려 사항에 대하여 "이성 동반과 늦은 시간 통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룸메이트의 수면 시간 방해 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7월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2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2학기 때 시범 운영을 한 후, 불만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통금시간에 관한 박덕영 총장의 공약

박덕영 총장은 학생 성공 지원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 생활관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밝혔다. 그중에서는 학생생활관 통금시간을 1시로 조정 및 점진적 폐지의 개선안도 담겨 있다. 학생생활관에는 전체 학생의 1/3가량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복지와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통금시간 시간대 조정 선호도>



학생들의 입장은

생활관에 거주 중인 학생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인호 학우(경영학과 23학번)는 "새벽까지 공부해야 할 때 기숙사 독서실은 꽉 막혀 있어 답답하다. 도서관에 가고 싶지만 통금시간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한별 학우(음악학과 23학번)는 "통금시간 직전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오히려 소란스럽다. 평일에 비해 비교적 많이 놀러 다니고 외출하는 주말에는 통금시간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며 통금시간의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김동건 학우(조형예술디자인학과 24학번)는 "디자인과의 특성상 야간에 작업을 할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숙사생들은 목표한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6시까지 밤을 새워야 한다. 올바른 수면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되며, 몸 상태가 악화하고 다음 수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며 통금시간의 불편한 점을 드러냈다. 이어 "시험 기간에 1~5시까지 통금시간을 완화했을 때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작업, 공부의 양도 늘어 밤을 새우지 않아도 돼서 학교생활이 편리했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기존 통금시간을 1~5시로 변경하고 시험 기간에는 2~5시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통금시간의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유의 허용, 과연 독이 될까

다른 학교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자. 한림대학교는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생활관과 통금시간이 있는 생활관 등 2종류가 있다.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생활관은 해당 건물의 거주 학생이 출입 카드나 모바일 카드를 인식시켜야 출입할 수 있다. 다른 생활관은 통금시간 동안 카드키를 인식시켜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반면 시험 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통금시간에도 카드키를 인식시키면 출입문이 열린다.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행정실 강화신 과장은 통금시간에 대해 "학생은 상시 출입에 대한 요청이 많았지만, 학부모는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 일부의 생활관에만 적용하였다. 처음 상시 출입을 허용할 때 우려 사항이 있었지만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절 문제가 없었다.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이 알아서 잘 생활한다."라며 상시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학생생활관 행정실에서 실시한 첫 설문조사, 박덕영 총장의 공약처럼 통금시간에 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면, 소음 등의 우려 사항도 있으므로 통금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학생들도 그에 걸맞은 윤리 의식을 지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김민수 수습기자

학생 발길 끊긴 “노천극장” 폐허 전락…
‘활성화 과제’ 책임 어디로

이용 횟수 단 두 건…57% 존재조차 몰라

30년간 자리를 지켜온 우리 대학의 노천극장이 학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폐허’로 전락했다. 노천극장은 강릉캠퍼스 예술체육대학 언덕길 끝에 자리 잡은 850㎡ 규모의 야외음악당이다. 그러나 예술체육대학에서 노천극장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여 간 학생들의 노천극장 이용 횟수는 단 두 건뿐이었다.

기자가 최근 재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4%는 “노천극장이 교내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답했다. 노천극장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해서(33.3%)”, “노천극장이 어떤 장소인지 정확히 몰라서(16.7%)”라고 답했다. 현재 노천극장을 주기적으로 찾는 이들은 노천극장을 연습실로 사용하는 교수밴드(East Sound)와 직원 밴드(Go On) 뿐이다.

“으스스하다”, “사고 위험”…시설 개선 안되나

기자가 노천극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극장 주변엔 벗겨진 페인트,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 관리되지 않은 주변 식물, 낙후한 음향 및 조명 장비가 널려 있었다. 노천극장에는 30년간 노후화 되어온 시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최민서 학우(패션디자인학과 20학번)는 “으스스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해 보인다. 미관상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예술체육대학 학생회 ‘백월’은 최근 학생회 발대식 행사를 노천극장에서 가졌다. 안수민 학생회장(패션디자인학과 22학번)은 “발대식 행사 중 파손된 콘크리트 조각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2015년부터 캠퍼스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노천극장의 리모델링과 관련해 시설과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설과 이창호 팀장은 “아직 노천극장은 리모델링 예산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진행 사안에 대해서는 “캠퍼스 노후 건물 리모델링은 15년 보건복지대 1호관을 시작으로 22년 예술 1호관, 강릉 도서관 열람실, 23년 생명 1호관이 완공되었고 향후 자연 2호관, 치학 1호관, 과학기술대 1호관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노후 시설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노천극장도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노천극장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노천극장의 활용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예산 핵심은 ‘학생 참여’

노천극장 리모델링 예산은 관리주체인 예술체육대학 또는 학생복지과를 통한 민원 접수 → 학생처장의 예산 회의 안건 제기 → 총장의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지영 학생처장은 “노천극장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에도 학생 참여 없이 방치될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천극장의 학생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리모델링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학생 참여 증진’이 노천극장 개선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설과와 학생처의 공통된 입장은 “활용 방안 제시 후 리모델링 예산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노천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학생의 수요 파악을 위함이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노천극장을 알고 있는 교내 공연 동아리 학생 88.9%는 “불편 사항이 개선되면 노천극장을 공연 장소로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설문조사 응답자는 노천극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혀, 노천극장에 대한 학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참여 과제’ 해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천극장 활성화’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 학생 참여 과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이다. 예술체육대학은 본교 공간관리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이다. 제 4조(공간관리 원칙) 4항에는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공간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예술체육대학 행정지원실에 확인한 결과 “노천극장의 장소 대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노천극장 활성화’는 관리주체로서의 필수 업무는 아니기에 예술체육대학에 학생 참가 과제 해결의 책임을 요구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현 총학생회장은 학생 참여 방안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관리 안 된 시설을 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노천극장이 리모델링되어 개선된다면 학우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문화인프라’로 활용…활성화 선례에 관심 이어질까

몇몇 다른 대학에서는 노천극장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같은 강원권 대학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노천극장은 2023년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후 2023년 10월과 2024년 6월, 원주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연세대 연세문화원과 공동주최한 음악 축제 ‘원주에브리씽페스티벌’이 해당 노천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기존 진행하던 학생 행사(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대동제 축제)를 넘어 지역사회 행사까지 노천극장의 활용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우리 대학의 노천극장은 학생 수요 저조 문제와 ‘학생 참여 증진’의 책임을 질 부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노천극장이 지역문화인프라로 이용된 같은 지역 대학의 긍정적인 선례가 있는 만큼, 우리 대학도 ‘노천극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세경 수습기자

노천극장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 : ‘백월의 밤’과 야외공연

예술체육대학 학생회 ‘백월’ 안수민 학생회장(패션디자인학과 22학번)은 노천극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 시네마 ‘백월의 밤’ 행사를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백월의 밤’은 노천극장이 야외무대라는 특성과, 언덕 끝에 위치에 있어 어둡다는 공간적 특수성을 살린 야간 행사이다. “노천극장은 위치적 특수성과 야외공간이라는 특성 덕에 학교에서 별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이다. 추후 노천극장에서 ‘별이 빛나는 밤 야외에서 즐기는 영상 상영회’도 계획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노천극장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늦은밤까지 야간 작업을 하는 학우들이 많은 예체대 소속 과의 특성상 노천극장에서 별을 보는 등 특별한 경험할 수 있는 점을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노천극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백월의 밤’, ‘별 보는 영상 상영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행사들은 예체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기획 단계에 있다.

한편, 6월 6일 노천극장에서는 공연 동아리 G#(지샵)과 SOUND MIXXING(사운드 믹싱)의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을 관람했던 김승환 학우(무역학과 20학번)는 “공연이 오후 7시쯤 시작했음에도 주변이 밝아 아쉬웠었는데, 끝날 때쯤 어두워지자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라며 후기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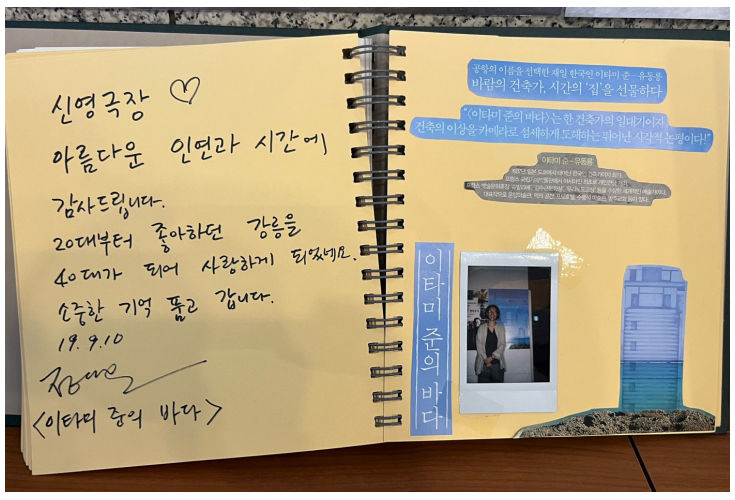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노천극장의 전경이다. 사진 제공=시설과







연대의 신영극장, 그 이야기를 묻다



▲신영극장을 방문한 영화인들의 방명록. 사진과 메세지들이 화목한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낡은 신영극장의 간판과 새 간판 사이, 신영극장의 오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강릉 유일의 예술 극장인 신영극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료 상영하며 뜻깊은 연대를 보여준 바 있었다. 총 111규모의 단관 상영을 하는 비영리 시민 영화단체 '강릉시네마떼끄'의 도움으로 독립극장 불황의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2016년 정부를 향한 보이콧, 2023년 국가지원금 축소로 인한 위기를 여러 차례 이겨낸 신영극장. 시민들과 연대하고 응원하며 생존해온 그 이야기를 신영극장의 실무 담당자인 송은지 프로그래머에게 물었다.

Q. 학생들에게 신영극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A. 우리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은 2012년에 개관을 한 영화관이다. 원래 무척 오래된 강릉의 극장이었는데,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강릉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활동'을 주로 하던 우리 '시네마테끄'가 따로 전용 극장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폐관한 신영극장 자리에 독립 영화와 예술 영화 상영을 전용으로 하는 예술관을 열게 되었다.

Q. 독립극장이니만큼 수익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위기들을 이겨내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왔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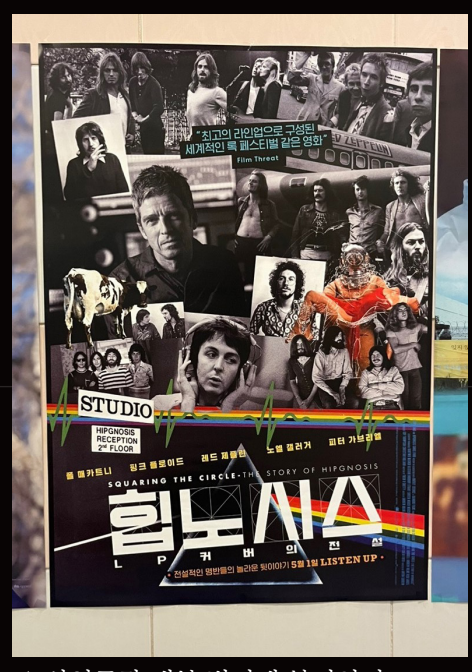
A. 폐관 위기라고 할 만큼 몹시 어려웠던 적도, 그러한 상황에 놓일 뻔한 적도 있었다. 2016년에는 실제로도 한 번 휴관했었다. 사실 독립영화관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기댈 곳이 많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지원 중 하나, 거의 유일한 지원책이었던 영화진흥위원회가 우리 같은 전국의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 지원사업의 형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원래는 이런 '독립 예술 극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가 상영된다'는 의의 하에 국가에서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특정한 영화를 상영해야지만 그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상영하고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유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원책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밖에 없었는데도 상영을 하지 않고 극장 문을 닫은 것이다. 그 기간이 1년 정도 된다. 그런데 신영극장을 대신할 다른 공간을 알아보려고 할 때쯤, 강릉시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었다. 강릉의 구도심 시민들에게는 신영극장이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가치를 알아봐 준 것이다. 계속 극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직접 지원에 나서주셨고 덕분에 극장을 다시 열게 되었다.

힘든 시기는 작년에도 있었다. 이번에는 강원도와 강릉시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지원을 많이 축소하면서 아예 지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위기로 인해 두 번이나 문을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우리는 '신영극장을 부탁해'라는 후원 캠페인을 열게 되었다. 다행히 강릉 시민분들이나 영화인, 예술 독립 영화를 사랑하는 전국의 팬분들에게 도움을 얻어, 문 닫는 일 없이 운영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지난 4월 3일에 있던 세월호 10주년 기념 무료상영회를 홍보하는 포스터이다. 사진 제공=강릉시민위원회



▲신영극장 내부 벽면에 붙어있던 독립영화의 포스터들이다.



▲신영극장 캠페인 당시의 응원메세지를 모아 붙여둔 포스터가 극장 벽면에 붙어 있다.

Q. 지난 4월, 추모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상영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유대를 보여주었다. 사실 이런 유대는 올해뿐이 아니었는데, 무료 상영을 준비하는 동안의 심정에 대해서 듣고 싶다.

A. 추모 영화 상영은 거의 매년 해왔다. 대단히 비장한 마음으로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독립영화계에서는 그 유대를 함께 해야 한다는 어떤 연대 의식 같은 것들이 강했다. 그래서 매년 4월쯤이 되면 세월호와 관련한 독립영화들이 무척 많이 개봉했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활발하고 꾸준하게 여러 영화와 단체들의 협력이 있었다. 강릉에서도 강릉 시민행동이나 전교조 같은 단체들도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도 매년 세월호와 관련한 영화라면 새로 개봉한 영화이든 아니든 간에 모아서 상영해 왔다.

그리고 사실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10주기쯤 되니, 아니 사실 5주기, 6주기 정도를 넘어가니 사람들의 관심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관심이 없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 하는 고통 때문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이야기되지 않았다. 사실 올해는 우리도 재정적으로 대단히 괜찮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모 관련 무료상영을 하려면 부수적인 비용 같은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 그때 마침 강릉 시민 행동에서 여러 지원을 함께 해주신 덕에 상영할 수 있었다.

Q. 당시 상영 현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부탁드린다.

A. 딱히 특별한 행사처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 당시 자리에 없었지만, 관객은 한 30명 정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간단히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분들은 영화를 관람했다.

사실 가능하면 4월 16일에 상영했으면 좋았을 테다. 하지만 그때는 또 다른 곳에서 규모가 큰 본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었기에, 주말 낮시간이라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관람하러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4월 3일에 무료로 상영하게 되었다.

Q.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A. 우리는 지금처럼 개봉하는 독립 영화들 예술 영화들, 또는 강원도에서 우리 혼자만 상영하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강릉 지역 밖에서는 보기 어려울 영화들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데에 힘을 제일 많이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이 원래부터 강릉 시민의 소중한 장소 중 하나였다는 것에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가 됐으면 한다. 또, 세월호 참사 외에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에 활발히 연대를 해나갈 생각이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혹은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말이다.

Q. 6월호를 읽을 학보의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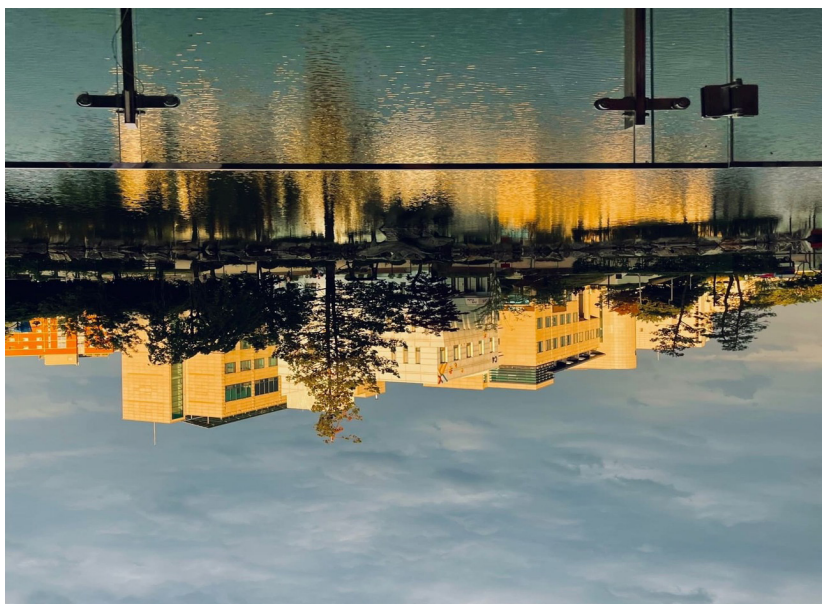
A. 요즘의 젊은 20대 관객들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잘 안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서울권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극장처럼 전국의 다른 지역의 독립영화관, 예술영화관은 청년 관람객이 극장을 잘 찾지 않는 추세이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유도 있을 것이다. 또는 환경 자체가 모바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핸드폰에서 볼 수 있는 숏폼이나 드라마, 유튜브와는 다른 체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우리 영화관에 많이 들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황보민경 기자



▲개편되기 이전 신영극장의 오래된 알림판을 한편에 보관해두고 있는 모습이다.

학생생활관 사진 공모전, 그 현장 속으로!



▲최우수상에 당선된 마재현 학우(도시계획부동산학과 23학번)의 <오로라(Aurora)> 사진이다.

사진 제공=학생생활관 행정실



▲우수상에 당선된 황현준 학우(전자 반도체공학부(전자공학전공) 23학번)의 <개화> 사진이다.

사진 제공=학생생활관 행정실

학생생활관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에서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강릉 캠퍼스 스팟'이라는 주제로 4월 15일에 사진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일주일간 진행된 공모전 제출작 수는 총 133점으로 사진 공모전 개최 4년간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다. 당선 결과는 지난달 10일 강릉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은 13일 학생생활관 행정실에서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은 마재현 학우(도시계획부동산학과 23학번)가 당선되었고, 우수상은 황현준 학우(전자 반도체공학부(전자공학전공) 23학번), 김주호 학우(치위생학과 24학번)가 당선되었으며, 장려상은 원형주 학우(치의예과 24학번), 김영인 학우(영어영문학과 23학번), 김민지 학우(패션디자인학과 22학번)가 당선되었다. 공모에 당선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되었다.

공모전 현장 속으로!

공모전 1차 심사는 관생 자치위원과 학내 사진동호회 직원의 평가를 거쳐 총 20점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2차 심사는 지난달 8일 점심시간에 학생생활관 식당 앞에서 이루어졌고, 스티커 3장을 배부하여 마음에 드는 사진 3점에 붙여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뒷문을 통제하여 동선을 조정한 점과 생활관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 투표 일정을 사전에 문자 공지한 결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오렌지 빛의 오로라'

최우수상 수상자 마재현 학우(도시계획부동산학과 23학번)는 공모전 참여 동기로 “SNS를 하지 않아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사진을 공유하고 싶었고, 작년 수상작들을 보며 잘 찍은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오로라 사진을 출품한 배경에 대해 “제가 오로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은 오로라 현상을 보기 힘든데 학우들에게 실제 오로라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이 추상적이라 의도가 잘 전달될지 걱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다행이고,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입상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오로라 사진에서는 “햇빛에 오렌지빛으로 비친 건물, 하늘과 호수에 비친 모습이 조화롭게 담길 수 있도록 찍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대상을 촬영하는 의도와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잘 함축시킨 제목을 붙였다.”라며 사진 촬영과 공모전 입상의 비결을 전하였다.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투표에 참여한 전보경 학우(영어영문학과 22학번)는 “학생생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들 모두 시험 기간과 겹치지 않아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해서 좋았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측 입구(뒷문)를 막은 것은 이해하지만, 기숙사 식당 이용 인원이 많고 심사 공간과 가까운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여유롭게 작품을 보며 투표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음 공모전이나 전시할 경우 비교적 넓은 사임당관/율곡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하면 좋겠다.” 라며 행사 진행 시기와 볼거리 제공은 좋았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박주원 학우(철학과 24학번)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주제로 하여 참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학교생활 중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생겨서 좋다.”라며 공모전에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참여율 높았던 이유, 참여만으로 상점 부여

학생생활관 행정실 박정희 팀장은 공모전을 개최한 계기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심했던 2021년, 야외 활동의 제약과 대외활동의 결여에 대한 대책으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그 뒤로 매년 진행했던 사진 공모전이 올해 역대 최다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 향상과 편의성으로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한 것 같다. 또한 참여 자체만으로도 상점이 부여되고, 시상금도 작년 대비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 같다.”라고 답했다. “사진 공모전을 2021년부터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사진 찍는 걸 이렇게 즐거워할지 몰랐고, 우리도 모르고 있던 장소를 잘 찾아 놀랄 뿐만 아니라 뿌듯함도 느껴진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태에 많은 참여와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할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많이 참여해 줘서 좋았다. 이후에 개최할 다양한 행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라며 마무리하였다.

인터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활관 내 행사와 각종 이벤트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수습기자

한 컷 속으로



▲우리 대학 본부 앞,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에 맞춰 깃봉을 내려 태극기를 게양한 모습이다. 사진=김혜미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단순히 바쁜 일상 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휴일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김혜미 기자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

